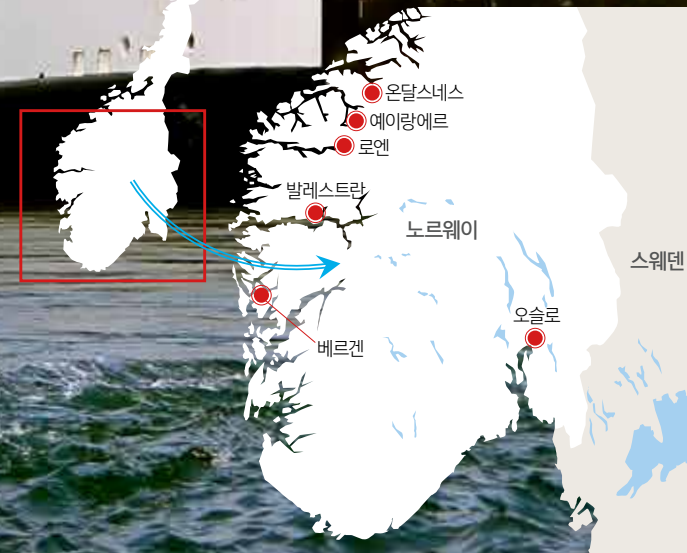


Panoramic Norway

빙하가 만든 불후의 걸작

노르웨이의 서해안은 피오르가 핏줄처럼 육지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희푸른 빙하와 새하얀 눈, 거대한 봉우리와 가파른 절벽, 굉음을 내며 떨어지는 폭포수 등 북구(北歐)의 신이 심혈을 기울여 빚은 불멸의 걸작들이 펼쳐져 있다. 그곳을 돌아보면 자연이 얼마나 거대한지, 또 인간은 얼마나 작은지 깨닫게 된다.

글·사진 임동근 기자





Bergen

베르겐, 낭만이 부유하는 피오르의 관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브뤼겐. 햇볕이 좋은 봄날 오후
사람들이 중세 도시역사지구 앞에서 맥주를 즐기고 있다.



1 한자동맹의 무역 활동 중심지였던 브뤼겐이 건너다보인다. 2 해가 저물어가는 베르겐항구



베르겐은 예쁘다. 빗깔이 참 곱다. 구불거리는 좁은 골목과 언덕에는 화사하게 색칠된 집이, 해안선을 따라선 빨강·노랑·파랑·초록 빛깔의 중세 시대 창고가 동화처럼 들어서 있다. 베르겐에선 슬렁슬렁 동화 속 풍경을 거닐다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바다가 보이는 식당에서 싱싱한 해산물로 배를 채울 수 있다. 여름을 향해가는 계절, 한층 길어진 하루만큼이나 그곳에서의 시간은 느리고 여유롭게 흘렀다.

터키 이스탄불 경유편을 타고 오슬로로 가던 4월 하순의 하늘길. 지구촌 곳곳을 여행했다는 옆자리의 핀란드인 중년 남성은 “피오르를 보러 노르웨이에 간다”는 기자의 말에 “피오르도 멋지지만 북쪽으로 좀

더 가면 오로라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오로라 제철이 이미 지났지만, ‘3대가 덕을 쌓아야 한다’라고도 했지만, 그 황홀경을 볼 수도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6일 동안 오로라는 볼 수 없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오로라는 매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그것도 유명 피오르 지대에서 한참이나 북쪽에 있는 트롬쇠(Tromsø) 정도는 가야 볼 수 있었다. 노르웨이 하면 실상 아는 게 별로 없다. 바이킹의 후예가 사는 땅, 수도는 오슬로고, 오로라 국(國)이며, 피오르가 있다는 정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살기 좋은 나라지만 한턱냈다가는 집안 기둥이 뽑힐지도 모를 살인적인 물가(物價)도 있다. 1994년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릴레함메르도 들어봤을 듯싶다. 물론 그곳이 노르웨이의 도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노르웨이는 한국과 꽤 관련이 있다. 한국전쟁 때 의료병력이 파병돼 부상병을 치료했다. 또 지금 우리가 먹는 수입 고등어와 연어의 절반 정도는 노르웨이산(産)이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가장 많이 딴 동계스포츠 강국이기도 하다. 영화 ‘어벤저스’ 시리즈에 등장하는 토르(Thor)는 노르웨이 최고 신(神)이기도 하다. 또 피오르 도시인 베르겐(Bergen)과 발레스트란(Balestrand)은 ‘겨울왕국’의 배경이 됐다.



1

오래됐지만 산뜻한 브뤼겐

오슬로에서 서쪽으로 470km 떨어진 베르겐은 피오르 여행의 관문이다. 노르웨이어 피오르(Fjord)는 ‘내륙 깊이 들어온 만’이란 뜻으로, 빙하가 깎아 만든 U자형 골짜기에 바닷물이 유입한 좁고 기다란 지형을 말한다. 남북으로 길게 뻗은 노르웨이의 서해안이 피오르 지대고, 그곳에 베르겐이 있다.

봄이 찾아온 인구 28만 명의 도시는 관광객으로 북적였다. 화사한 벚꽃이 거리를 분홍빛으로 장식하고, 초록빛 잔디 깔린 공원에는 여유로운 분위기가 가득했다. 항구 주변 노천카페와 레스토랑에선 빈자리를 찾기 어려웠고, 어시장은 분주했다.

항구와 인접한 베르겐 최고 명소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브뤼겐(Bryggen)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었다. 삼각형의 뾰족한 박공지붕을 얹은 4층의 고만고만한 목조건물 10여 채가 바다를 향해 어깨를 마주한 곳. 빨강, 노랑, 하양, 갈색 등 단정하게 색칠된 건물들은 무척 산뜻해 보였다. 이 건물들은 1360년부터 약 400년간 독일 상인들이 보관창고이자 사무실 겸 숙소로 사용한 곳들이다. 당시 유럽의 상업 도시들은 해상교통의 안전을 보장받고 상권을 확대하기 위해 독일 주도로 한자(Hansa)동맹을 맺었다. 베르겐도 한자동맹 참여 도시 중 하나였다. 베르겐이 대구의 집산지이자 수출항으로 번성하자 독일 상인들이 이곳에 목조건물을 짓고 해외지사 겸 물류창고로 사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 목조건물들은 화재에 취약해 수차례 화마에 휩싸였다. 1702년에는 모든 건물이 잿더미가 됐고 이후 재건축한 것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렇게 불에 타면서도 목조를 고집한 것은 독일 상인들의 전통 때문이었다고 한다. 또 그들에게는 원형 그대로 복원할 수 있는 설계도가 있었다고 한다. 비록 건물은 300년쯤 됐지만 중세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셈이다.

화사한 빛깔의 건물을 정면에서 보면 한쪽으로 살짝 기울 것을 알 수 있다. 문도 진열장도 직사각형을 이루지 못하고 살짝 마름모꼴이다. 건물이 서 있는 게 신기할 정도다. 대구와 건어물, 곡식으로 가득했던 창고는 근대 산업화에 따라 용도를 잃어갔다. 현재 건물들은 기념품점, 펍, 호텔, 카페, 레스토랑 등으로 변신했다.



3



4

1 브뤼겐에서 바라본 풍경
2, 3 브뤼겐 역사지구 골목에 있는 동화 같은 건물들
4 브뤼겐 골목 안에 전시된 물고기 조형물



2



1, 5 베르겐항구 인근 거리 풍경 2 탑 2개가 높이 솟은 성 마리아 교회
3 왕의 거주지이자 연회장이었던 호콘 홀



상인회관 북쪽에는 12세기에 건축된 석조 건물인 성 마리아 교회 (St. Mary's Church)가 있다. 베르겐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측면에서 보면 겹겹의 아치가 아름다운 로마네스크 양식을 띤다. 하지만 정면은 탑 2개가 높이 솟은 고딕 양식이다. 브뤼겐에서 북서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한때 노르웨이의 수도였던 베르겐을 방어하기 위해 13세기 중반 건설된 베르겐후스 (Bergenshus) 요새에 닿는다. 요새에는 중세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건물 2동이 있다. 왕궁의 일부로 사용된 로젠크란츠 (Rosenkrantz) 타워와 왕의 거주지이자 연회장이었던 호콘 홀 (Håkon's Hall)이다. 호콘 홀은 1944년 제2차 세계대전 중 폭파돼 1957년 재건되기도 했다.



4 베르겐후스 요새 안에 있는 건물 6, 7 싱싱한 해산물이 진열된 '피시 미' 수산시장

군침 도는 해산물 천국 '피시 미'

발길을 돌려 돌아온 항구. 항구에서의 여유를 즐기기 위해, 피오르로 가는 크루즈를 타기 위해 여행자가 가장 많이 찾아드는 이곳에는 베르겐의 보통 건물과 비교해 도드라져 보이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2층 건물이 있다. 건물 2층은 관광안내소, 1층은 수산시장이다. 수산시장의 이름은 '피시 미'(FISH ME·'나를 낚아'라는 뜻). 채치있는 상호에 배시시 웃음이 난다. 이곳 수산시장은 싱싱하고 꿈틀거리는 해산물이 가득한 우리의

노랑진수산시장이나 자갈치시장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시장이라기보다 백화점 수산물 코너 같은 느낌이다. 투명한 유리 진열대 안에 해산물이 진열돼 있고, 살아 있는 것은 없다. 연어를 제외하면 우리처럼 생선을 회로 먹지 않기 때문이다. 진열대에는 커다란 송어를 비롯해 대구, 청어, 고등어, 새우, 바닷가재와 민물 가재, 가리비, 굴, 성게, 킹크랩 등 해산물이 가득하다. 훈제하거나 양념한 물고기도 있고, 말린 생선은 줄에 주렁주렁 걸려 있다. 기념품으로 인기가 높은 대구 알도 있다. 노르웨이





1

1 미술관 거리가 있는 호수가 잔디밭에서 휴식하는 사람들 2 에드바르 그리그 동상의 머리 위에 비둘기가 앉아 있다. 3 베르겐 최대 변화가가 있는 광장

인들은 치약 같은 용기에 담긴 대구 알을 빵에 바르거나 스파게티에 넣어 먹는다. 맛이 짭조름하고 고소해 빵과 궁합이 잘 맞는다. 한쪽엔 햄과 계란, 치즈 등도 진열돼 있다. 연어회, 간장, 고추냉이, 야채로 구성된 도시락, 스프링롤·초밥 도시락도 판매한다. 바로 옆에는 식당이 있다. 이곳에선 메뉴를 고르면 수산시장에 있는 재료를 이용해 즉석에서 요리를 만들어낸다. 초장 집의 일종인 썸이다. 해산물에 육식내고 싶다면 세트 메뉴(2만8천~9만5천원)를 주문하거나 수산시장에서 해산물을 직접 골라 담으면

된다. 피시앤칩스부터 데리야키 연어, 킹크랩, 새우구이 등 해산물 단품 메뉴, 연어나 고래고기를 이용한 버거도 있다. 애피타이저로는 싱싱한 굴, 훈제연어, 바닷가재를 맛볼 수 있다. 단품 가격은 200~250크로네(2만7천~3만4천원)로 조금 높은 편이지만 맛은 입꼬리가 귀에 걸릴 정도다.

피시 미는 해물 뷔페 크루즈(170인승)를 운영한다. 새우, 조개, 홍합, 민물 가재, 훈제연어 등 싱싱한 해산물을 즐기면서 브뤼젠과 항구, 주변의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매년 5월 22일부터 9월 15일까지 운영한다. 점심 크루즈는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간, 디너 크루즈는 오후 6시부터 2시간 30분간 진행된다.

해 질 녘 항구 주변은 불게 타들어 가며 사람들을 유혹했다. 사람들은 항구 어디라도 궁둥이를 붙이거나 동상처럼 멈춰 서거나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분홍빛으로 물들어가는 서쪽 하늘과 바다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2



3

June 2019



4



5

4 에드바르 뭉크의 '카를 요한의 저녁' 5 뭉크의 작품이 전시된 KODE3 6 KODE3의 뭉크관. 맞은편에 '다리 위 여인들이' 걸려 있다.

에드바르 뭉크를 만나다

항구 남쪽에는 베르겐 최대 변화가가 자리한다. 쇼핑물과 슈퍼마켓, 옷가게와 스포츠용품점, 호텔, 레스토랑과 카페, 맥도날드 등이 기다란 직사각형의 광장을 따라 밀집해 있다.

한 블록 남쪽에 있는 공원에는 베르겐 출신으로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음악가였던 에드바르 그리그(1843~1907)의 초록색 동상이 서 있다. 갈매기 한 마리가 머리 위에서 서서 떠날 줄 모른다. 얼마나 많은 갈매기가 올랐는지, 동상은 새똥으로 하얗게 얼룩졌다.

남쪽으로 호수가 넓게 펼쳐져 있고, 호수 북측에서는 산허리를 알록달록 장식한 동화 속 집들이 호수를 내려다보고 있다. 호수가 벚꽃은 분홍빛으로 흐드러졌고, 그 아래 잔디밭에선 갈매기 떼가 털을 고르며 쉬고 있다. 호수 둘레는 강아지와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벤치나 풀밭에 앉아 여유를 즐기는 이들로 북적댄다. 그들처럼 벤치에 앉아 잠시 여유를 만끽해본다. 따스한 햇

별과 화사한 꽃, 산허리의 예쁜 가옥과 시원스러운 호수, 오가는 사람들의 평온한 표정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듯했다.

호수 남쪽은 '미술관 거리'(Art Gallery Street)라 불린다. 고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나란히 있기 때문이다.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KODE(베르겐 미술관의 공식 명칭)1~4, 현대미술 전시관인 베르겐 쿤스트할(Kunsthall), 서노르웨이 공예박물관 등이 있고, 뒤편에는 콘서트홀이 자리한다.

이 중 가장 흥미로운 곳은 KODE3. 바로 이곳에 에드바르 뭉크(1863~1944)의 작품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곳은 오슬로에 있는 뭉크미술관과 노르웨이 국립미술관 다음으로 최고의 뭉크 작품을 갖추고 있다. '다리 위 여인들', '카를 요한의 저녁', '여자의 세 단계', '4대' 등 그의 대표작을 만날 수 있다. 뭉크 이외에 '노르웨이 미술의 아버지'로 불리는 달(J.C. Dahl)의 낭만적인 풍경화,



6



1 플뢰엔 산으로 향하는 푸니쿨라 2 베르겐 전경이 펼쳐지는 플뢰엔 산 전망대 3 플뢰엔 산 정상에서 만난 염소들



2



아스트루프(Nikolai Astrup) 등의 작품도 볼 수 있다. 옛 가구와 장식품, 피아노를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도심 남쪽에는 그리그가 여름별장으로 사용하던 빌라도 있다. 도심에서 차로 1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이곳은 지금 그를 기념하는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6~9월 저녁에는 리사이틀이, 5~10월 점심때는 콘서트가 열린다.

도시 전경 펼쳐지는 플뢰엔 산

베르겐 둘레로는 산이 7개 있다. 산 7개를 오르내리며 하이킹을 즐길 수 있다. 이 중 플뢰엔(Fløyen, 400m) 산은 관광객의 필수 방문지다. 그곳 전망대에서는 베르겐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플뢰엔 전망대로 가는 푸니쿨라(등산열차)는 항구 동쪽에서 출발한다. 정류장으로 향하는 구불거리는 좁은 골목길에는 예쁜 가옥과 상점이 있다. 베르겐 대표 명소답게 정류장에는 탑승을 기다리는 관광객의 줄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푸니쿨라가 미끄러지듯 경사로를 오르자 베르겐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베르겐 항구와 바다, 빨강과 갈색



3

지붕의 가옥들, 색색의 건물들이 형체를 보이더니 푸니쿨라는 약 3분 만에 해발 320m에 있는 상부 정류장에 도착했다.

정류장을 나서자마자 전망대 너머로 베르겐이 펼쳐진다. 항구 너머로 평온한 바다가 펼쳐지고 낮은 산들이 이어져 있다. 관광객들은 베르겐의 전경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느라 분주하다. 전망대 인근엔 카페와 기념품숍, 식당이 자리한다. 다양한 놀이 기구가 설치된 놀이터에선 아이들이 놀고 있다. 산악자전거 대여점도 있다.

산책로를 따라가자 염소들이 커다란 바위를 점령한 채 휴식하고 있다. 관광객들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한다. 산책로는 초록빛 무성한 숲속으로 이어지는데 10분 정도 걸으면 작고 호젓한 호수도 볼 수 있다. 걸어서 하산하는 것도 추천한다. 베르겐의 풍광을 감상하며 3km 숲길을 따라가다 보면 45분 만에 도시에 닿을 수 있다.



Fjords

노르웨이 피오르 거대한 설산 솟은 장엄한 빙하 계곡

머리칼이 쭈뼛 서는 극한 떨림을 만끽하고 싶다면 노르웨이 피오르로 가라. 가파른 천 길 낭떠러지 끝에 서거나 수직 절벽을 기어오르면 가슴 철렁한 짜릿함을 느낄 수 있다. 그곳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가슴 터질 듯 장엄하고 신비로우며 아름답다. 이것이 바로 그 멀고도 턱없이 비싼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야 하는 이유다.

● 발레스트란

● 로렌

● 에이랑에르

● 온달스네스

에이랑에르의 아슬아슬한 절벽 뒤로
피오르의 멋진 풍경이 펼쳐진다.

Balestrand

발레스트란



쾌속선은 오후 4시가 넘어 베르겐 항구를 떠나 북쪽으로 향했다. “4월은 날씨 변화가 무척 심하다”는 마리카 클라우스 씨(베르겐 가이드)의 말처럼 베르겐의 날씨는 종잡을 수 없더니, 그곳을 떠나자마자 비가 흠뻑리기 시작했다. 피오르를 가르는 세찬 바람에 추워지며 점퍼를 걸쳐야 할 지경이었다. 비, 갬, 흐림을 반복한 날씨. 2시간여를 북상하던 쾌속선은 드디어 송네 피오르(Sognefjord)로 진입했다.

송네피오르는 길이 204km, 최저수심 1천 300m로 노르웨이에서 가장 길고 깊은 피오르다. 침엽수림이 뒤덮은 풍경 뒤편으로 거대한 암반을 머리에 인 산과 가파른 절벽이 도열하고 있다. 수면 위에 올라선 해발 1천700m를 넘는 봉우리들은 그야말로 거대하고 웅장하다. 그 장대함에 압도돼 저절로 고개가 숙어질 지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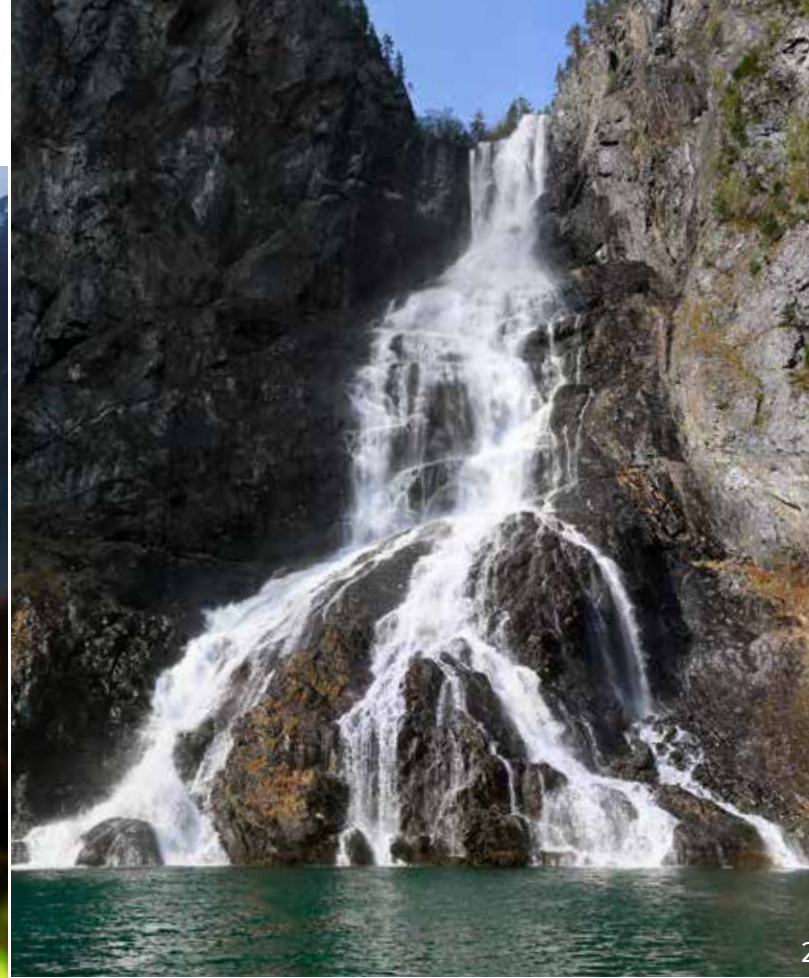
고속단정으로 돌아보는 네뢰위피오르

피오르 여행의 첫 방문지는 발레스트란. 이곳에선 송네피오르와 네뢰위피오르(Nærøyfjord)를 돌아볼 수 있다. 관광안내소 앞 선착장에서 고무재질의 12인승 고속단정(RIB)에 오르기에 앞서 두툽한 상하

용 스타일 가옥이 인상적인
발레스트란의 마을 풍경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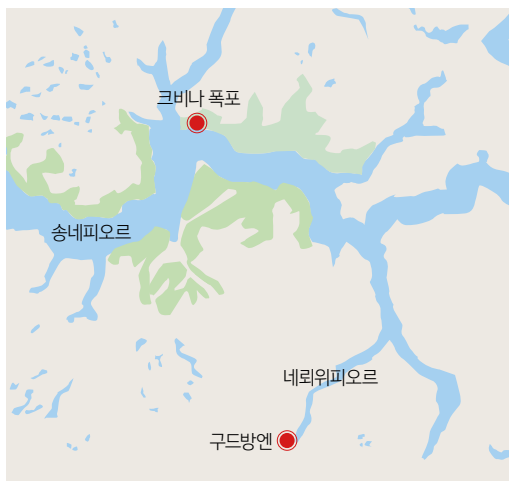


2



3

- 1 흰 눈 쌓인 산들이 중첩된 송네피오르
- 2, 3 엄청난 물을 쏟아내는 크비나 폭포와 폭포에 접근한 관광객을 태운 보트
- 4 네뢰위피오르 벼랑 아래의 해안 길



일체형 방한복을 입고, 고글을 착용했다. 보트는 최고 9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고, 폭포 앞에선 물벼락을 뒤집어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싱그러운 초록빛 수변에 그림 같은 마을이 들어서 있고, 나무들은 하얗고 노란 꽃망울을 탐스럽게 터뜨렸다. 마을 뒤 침엽수림 뒤편 멀리에는 하얀 눈을 뒤집어쓴 산들이 위용을 뽐내고 있다. 따스한 봄과 차가운 겨울이 하나의 화폭에 담긴 풍경화 같다.

보트가 속도를 내더니 이내 120m 높이에서 물을 쏟아내는 크비나(Kvinna) 폭포 앞에 당도했다. 폭포는 괴수처럼 굉음을 낸다. 물줄기가 얼마나 세찬지 불과 몇 초 사이에 온몸이 흠뻑 젖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처음에 탄성을 자아내던 폭포는 지겨울 정도로 자주 나타났다. 아니, 모든 절벽에는 폭포수가 끈으로 묶은 듯 수직의 하얀 띠를 두르고 있었다. 하지만 피오르의 변화무쌍한 광경은 너무도 경이로워 한시도 눈을 떼기 힘들었다.

동쪽으로 향하던 보트가 남쪽으로 접어들자 수로의 폭이 이전보다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 다시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서자 폭은 더 비좁아졌다. 바로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등재된 네뢰위피오르다. 이곳은 경관이 빼어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피오르 중 폭이 가장 좁다. 양옆의 웅장한 바위산과 깎아지른 절벽, 힘차게 쏟아지는 폭포가 손에 잡힐 듯하다.



4

물길 한쪽 조그만 바위 위와 인근에선 물범 4~5마리가 한가롭게 노닐고 있다. 보트가 지나고 방문객이 손을 흔들어도 익숙한 듯 전혀 개의치 않는 눈치다. 이곳 피오르는 생물 종이 다양한데 최근에는 범고래까지 나타났다고 한다. 피오르엔 전기유람선도 등장했다. 환경을 보존하고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더구나 조용하기까지 해서 동물들을 놀라게 하지 않는다. 피오르 유람선은 조만간 모두 전기동력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가파른 절벽 아래 초지에 자리한 그림 같은 마을 몇 개를 지나고, 네뢰위피오르의 끝에 있는 구드방엔(Gudvangen)에 도착했다. 이곳에선 피오르 보트 관광은 물론 하이킹, 카야킹 등을 할 수 있다. 바이킹의 대장간을 둘러보고 도끼 던지기, 활쏘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바이킹 체험마을(Viking Valley)도 있다.

흥미로운 발레스트란 도보 여행

3시간여의 피오르 보트 관광 후에는 발레스트란 도보 여행에 나설 차례. 웅단 같은 풀밭 위에 하얗고 노랗고 빨간 집들이 수변을 따라, 또는 초록빛 언덕 위에 들어서 있다. 풀밭에는 노란 꽃이, 비탈 사과밭에는 하얀 꽃이 만발했다.



- 1 초록빛 싱그러운 발레스트란의 마을 풍경
- 2 전기유람선 '퓨처 오브 더 피오르'
- 3 바이킹 체험마을에서의 활쏘기 시범
- 4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모델이 된 성 올라프 교회
- 5 크비크네스 호텔 1층에 전시된 옛 가구와 사진, 그림

눈에 띄는 것은 지붕 끝에 용머리 장식이 달린 고풍스러운 건물들. 이런 용 스타일(Dragon Style) 건축물은 바이킹 시대와 중세에서 유래한 디자인으로 1880~1910년에 유행했다고 한다. 빛바랜 회색 지붕, 붉은 벽, 초록빛 테라스가 있는 고택 지붕에는 하얀 용 4마리가 하늘을 향해 머리를 치켜들고 있다. 우리 궁궐 지붕의 용 장식처럼 사악한 기운을 쫓기 위한 용도라고 한다.

1897년 건축된 성공회 교회인 성 올라프(Saint Olaf) 교회도 시선을 끈다. 진한 갈색 벽면에 노란색으로 테두리를 두른 건물로 십자가 아래 지붕에 용머리 장식이 달려 있다.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에서 엘사의 대관식 장소는 바로 이 건물을 모델로 했다.

발레스트란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은 선착장 인근의 크비크네스(Kviknes) 호텔. 외관은 현대적이지만 역사가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유서 깊은 건물이다. 독일제국의 황제 빌헬름 2세가 이곳에서 휴가를 보내고, 노르웨이의 유명한 예술가들이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화폭에 담으며 유명해졌다. 호텔 1층에는 당시 그린 풍경화가 여러 점 걸려 있고, 빌헬름 2세가 사용한 의자도 놓여 있다.



Loen 로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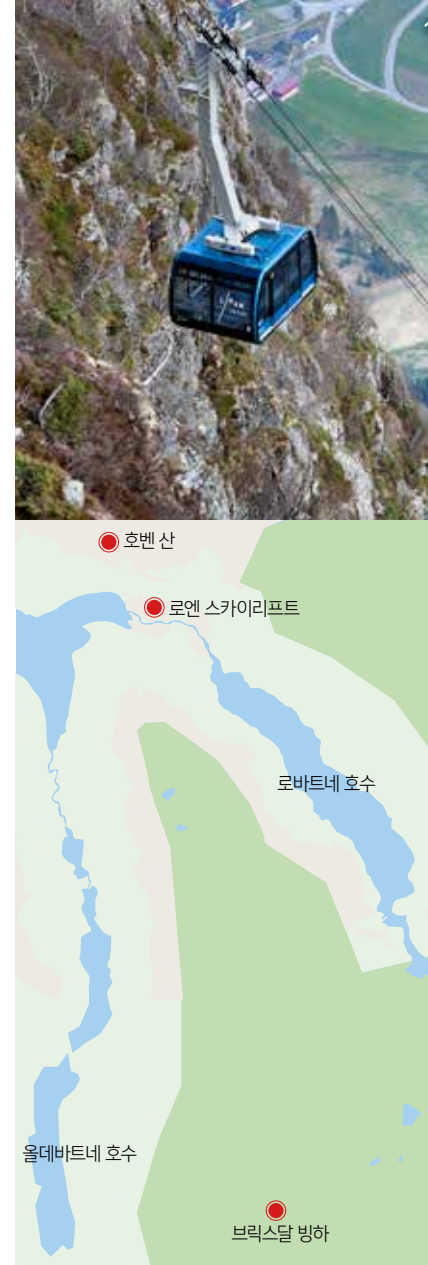
송네피오르 북쪽에는 노르피오르(Nordfjord)가 있다. 발레스트란에서 노르피오르의 명소인 로엔까지는 육로로 3시간 30분이 걸린다. 하지만 잠깐이라도 눈을 붙일 틈이 없다. 창밖으로 피오르, 호수와 설산, 동화 속 같은 마을이 있는 경이로운 풍경이 끊임없이 펼쳐진다. 지그재그 오르막 도로의 끝에는 시원스러운 풍광을 선사하는 전망대가 있고, 거대한 산을 넘어서면 빙하수가 야성적으로 흐르는 폭포와 계곡을 만난다.

시린 풍경 펼쳐지는 로엔 스카이리프트

그야말로 산 넘고 물 건너, 좋은 풍경을 눈에 가득 담고 도착한 로엔. 여기에는 2017년 개장해 이곳의 명물이 된 스카이리프트(Skylift)가 있다. 스카이리프트는 하부 승강장을 떠나자마자 솟구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급경사를 빠르게 오른다.

스카이리프트가 절벽을 타고 오르면서 피오르와 마을, 멀리 호수가 갈수록 가까워진다. 평온하면서도 아찔한 광경이다. 이상의 '오감도'처럼 새가 되어 하늘로 높이 솟아올라 내려다보는 기분마저 든다. 하부 승강장을 떠난 지 5분, 스카이리프트는 해발 1천11m의 호벤(Hoven) 산 정상에 도착했다. 승강장 바깥으로 나서자 그곳은 아직 겨울이다. 눈이 아직 하얗게 쌓여 있고, 두꺼운 외투가 필요할 정도로 바람이

햇살이 구름을 뚫고 내려와 노르피오르를 아름답게 수놓고 있다.



1, 2 로엔 스카이리프트와 하부 승강장 3 상부 승강장 건물에 있는 전망 레스토랑

거세다. 피오르와 나란한 전망대에 서자 가슴이 뻥다. 하얀 눈을 뒤집어쓴 거대한 산들이 시원스레 펼쳐지고, 발아래로는 노르피오르와 로바트네(Lovatnet) 호수 사이에 로엔이 그림처럼 들어앉아 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은 구름을 뚫고 내려와 수면에 황금빛 문양을 새겨놓는다. 사방이 절경으로 가득한 아이맥스 스크린이다.

전망대 뒤편으로 걸음을 옮기자 높이 5m의 편자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노르웨이 신화 속 오딘이 슬레이프니르라는 말을 타고 피오르를 지나다 이곳에서 박차오르며 발자국을 남겼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벼랑 끝쪽 바위에 서면 설산과 호수를 배경으로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멋진 사진을 간직할 수 있다.

전망대 아래는 레스토랑이다. 시야를 가리지 않게 계단식으로 설계해 탁자를 배치한 레스토랑에서는 커다란 유리창 바깥으로 펼쳐지는 장엄한 풍광을 감상하며 식사를 즐길 수 있다.





1



2

1 브릭스달 빙하를 향해 가는 전기차 2 희푸른 빛깔의 브릭스달 빙하 3 차가운 빙하수를 손으로 뜨고 있다. 4 허를 내민 듯한 모습의 브릭스달 빙하



4



3

푸른 빛 신비한 브릭스달 빙하

노르피오르의 또 다른 볼거리는 요스테달 빙하(Jostedalbreen)다. 유럽 대륙 최대의 이 빙하는 길이 약 80km, 두께 500여m로, 면적은 487km²(서울 면적 605km²)에 이른다. 이 빙하가 모두 녹으면 11조4천억ℓ의 물이 되는데 노르웨이가 10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수량에 해당할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로엔에서는 요스테달 빙하의 일부인 브릭스달 빙하(Briksdalsbreen)를 찾아가 볼 수 있다. 브릭스달 빙하 탐방안내소는 로엔 남쪽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올데바트네(Oldevatnet) 호수 끝에 있다. 탐방안내소는 온통 거대한 산과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가파른 절벽을 따라서 볼레(Vole) 폭포가 300m를 수직으로 떨어지며 멋진 풍경을 선사하고,

멀리 산정 부근에선 희푸른 빙하가 고개를 살짝 내밀고 있다. 계곡을 따라선 차가운 빙하수가 힘차게 흘러간다.

8인승 전기차에 오르자 갑자기 하늘이 어둡해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후두두 떨어지기 시작했다. 빙하수가 폭포를 이룬 곳을 지나 꼬부랑길을 오르자 브릭스달 빙하가 조금씩 가까워진다. 전기차에서 내려 계곡을 거슬러 건자 초록색 표지판을 눈길을 끈다. 표지판에는 'The glacier position in 1920'(1920년 빙하 위치)라고 적혀 있다.

베아테 빅 하우게 노르피오르 마케팅 매니저는 “훨씬 전에는 빙하가 아래 호수까지 뒤덮고 있었지만 기후변화로 지금은 1km 이상 물러난 상태”라고 설명했다. 얼음으로 온통 뒤덮였을 100여 년

전을 떠올렸다. 엄청난 장관이었을 것 같다. 아쉬웠다. 빙하에 조금 더 가까이 발걸음을 옮긴 후 조그만 둔덕을 넘자 투명한 초록빛 호수가 펼쳐지고, 두 봉우리의 골짜기 부분이 희푸른 빙하로 덮여 있다. 브릭스달 빙하는 마치 허를 내민 것처럼 보인다. 해서 '빙하의 허'라고도 불린다. 비가 그치고 때마침 구름 사이로 푸른 하늘이 열리자 빙하는 더 투명한 푸른 빛을 내뿜는다. 호수에 손을 담그자 얼음장처럼 차가운 기운에 정신이 번쩍 든다. 손으로 물을 떠서 한 모금 들이켜본다. 시원하면서도 맛이 좋은 느낌이다. 브릭스달 빙하를 좀 더 즐길 욕심에 가져온 생수를 비우고 물통을 빙하수로 채웠다. 그날 빙하수를 들이킬 때마다 그 시리고 희푸른 빙하가 가슴을 시원하게 채우는 듯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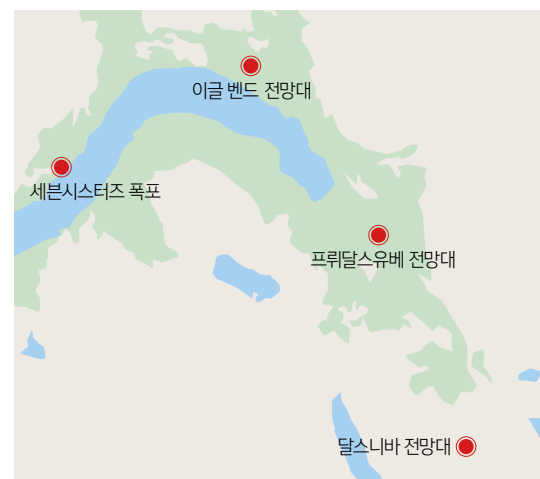


Geiranger

예이랑에르



1 장관을 선사하는 세븐시스터즈 폭포 2 무지개를 만들어내는 폭포의 물줄기 3 헬레실트에서 예이랑에르로 향하는 유람선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들



예이랑에르에 가기 위해 헬레실트(Hellesylt)에서 유람선에 올랐다. 예이랑에르피오르는 네뢰위피오르와 함께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등재된 곳. 그만큼 풍광이 빼어나다는 이야기다. 이곳 피오르는 1천m 이상 고봉에서 절벽을 타고 쏟아져 내리는 폭포가 가장 큰 볼거리다. 특히 매년 4~6월에는 설산에서 녹은 물이 수백 개의 물줄기가 되어 바다로 쏟아지는 장관이 펼쳐진다. 선착장을 떠나 30분쯤 지나자 새하얀 물줄기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산줄기마다 깎아지른 절벽마다 쏟아지는 물줄기는 셀 수 없을 정도였다. 바위에 부딪힌 물줄기는 햇빛을 받아 무지개를 만들어내고, 세찬 바람을 맞은 폭포는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커튼처럼 흔들린다. 특히 여러 개의 물줄기가 수면을 향해 힘차게 떨어지는 '세븐시스터즈 폭포'는 정말 멋지다.





1 이글 벤드 전망대에 가기 위해서는 11개 굽이의 도로를 지나야 한다. 2 여행객이 프뤼달스유베 전망대 인근 벵랑 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3 이글 벤드 전망대에서 바라본 예이랑에르피오르 4 피오르를 지나는 유람선

폭포에 정신이 팔려 1시간이 훌쩍 흘렀고 어느새 예이랑에르에 도착했다. 인구 200여 명의 작은 마을이지만 이곳에는 설산과 바다가 이룬 장엄한 풍경을 감상하기 위해 연간 30만 명 이상이 방문한다.

벵랑 끝에서의 아슬아슬 '인생샷'

예이랑에르피오르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 올라야 한다. 가장 높은 전망대는 해발 1천450m에 자리한 달스니바(Dalsnibba)지만 아쉽게도 그곳까지 가는 도로가 5월 중순에나 열려 가지 못했다.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다. 수려한 풍광을 선사하는 전망대가 2곳 더 있다.

전망대로 가기 위해 마을에서 운영하는 2인승 전기차에 올랐다. 내비게이션은 목적지까지 안내하며, 예이랑에르 마을과 피오르

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도로에는 자동차가 별로 없어 안전하고 빠르게 나아갈 수 있었다. 달스니바 전망대 가는 길에 있는 프뤼달스유베(Flydalsjuvet)에 도착했다. 전망대에선 마을과 피오르가 한눈에 들어온다.

오베 스켈스타 가이드가 전망대 오른편 100여m 떨어진 곳으로 일행을 안내한다. 그곳 바위 위에 이 지역 관광을 위해 헌신한 노르웨이 여왕에게 2003년 헌정한 의자가 설치돼 있다. 의자에 앉자 눈앞에 피오르가 펼쳐지고, 세상을 호령하는 왕이라도 된 듯한 기분에 괜히 우쭐해진다.

가이드가 다시 오솔길로 내려가더니 벵랑 쪽으로 이끈다. 바로 인생샷 포인트다. 천 길 낭떠러지의 뽕족하게 튀어나온 바위에 걸터앉아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설산과 푸른 물, 봄빛이 완연한 마을을 한장에 담을 수 있는 곳이다. 심장이 떨려 서지는 못하고 바



1, 2 이글 벤드 전망대 아래 언덕에 자리한 농가의 모습
3, 4 농가 주변에 핀 야생화

위 끝자락에 겨우겨우 궁둥이를 붙이고 앉아 '인생샷' 한장을 건졌다. 마을을 가로질러 다른 쪽 도로를 지그재그 오르자 또 다른 전망대가 나타났다. 이름은 이글 벤드(Eagle Bend). 이곳 위쪽에 독수리가 많아 붙은 이름이다. 이곳 전망대는 수직 절벽 위에 콘크리트로 구조물을 만들고 펜스를 둘러 훨씬 안전해 보인다. 전망대 바깥으로는 예이랑에르에서 헬레쉴트로 이어지는 피오르의 장엄한 풍경이 펼쳐진다. 흰 눈을 뒤집어쓴 거대한 고봉들이 웅장함을 뽐내고, 멀리선 세븐시스터즈 폭포가 하얀 물줄기를 수면에 쏟아내고 있다.

초록 언덕 위 동화 속 목조 가옥

점심때 농가 한 곳을 방문했다. 이글 벤드 아래쪽 전망 좋은 언덕에 자리한 집이다. 예이랑에르에서 별이 가장 잘 드는 곳이라고 한다. 18세기에 석축 위에 세운 목조 가옥에는 세월의 흔적이 덕지덕지하다. 장식으로 걸어 놓은 사슴뿔과 커다란 우유 통, 수레바퀴도 썩 잘 어울린다. 흙으로

덮은 지붕에는 풀이 한가득 돋았다. 사과꽃 하얗게 핀 초록 언덕, 노랑·흰색·빨강 야생화가 집과 어우러진 모습은 무척 동화적이다.

집주인 아네테 뉘네바 뿔 씨가 일행을 환영하며 “담다디 담다디 담다디담다 다디다디 담다디 담다디담”이라는 가사의 노래를 반복적으로 읊조린다. 가수 이상은의 ‘담다디’가 아니다. 애잔하면서도 차분한 느낌의 이 노래는 결혼식이나 행사 때 부르는 전통음악이라고 한다. 그는 “느리게 흐르는 물과 바람 등 자연이 담긴 노래”라고 말했다.

식사로노는 노르웨이 전통의 대구 스튜를 먹었다. 잘 말린 대구를 토마토소스에 조려낸 것으로 빵을 곁들이니 맛이 꽤 좋다. 해장으로도 좋을 듯하다. 100년 이상 된 집에서 오래된 식탁에 앉아 먹는 전통의 음식은 미각을 행복하게 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유람선 한 척이 피오르의 잔잔한 수면을 가르며 지난다. 그림 같은 풍경에 탄성이 절로 나온다.



5 노르웨이 전통 노래를 부르는 아네테 뉘네바 뿔 씨 6 농가 주택 내부 7 대구 스튜
8 예이랑에르 선착장 인근의 캠핑장



Åndalsnes

온달스네스

예이랑에르 북쪽, 차로 두 시간 반 거리에 있는 온달스네스는 롬스달피오르(Romsdalsfjord)의 안쪽 깊은 곳에 있다. '등반 수도'(mountaineering capital)라 불릴 정도로 산을 좋아하는 이들이 찾아드는 곳. 그곳엔 유럽에서 가장 험하다는 트롤 월(Troll Wall)이 있다. 그래서 산에 올랐다. 처음엔 단순한 등산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위험천만해 보이는 수직 암벽을 기어올랐다.

환하게 내리쬐는 온달스네스의 오후 햇살은 따가웠다. 눈 덮인 봉우리가 길게 펼쳐지는 등반 센터 인근 해안가에선 반소매와 반바지 차림의 사람들이 파라솔 아래서 태양을 피하고, 선창에선 십대들이 다이빙을 즐기고 있었다. 설산이 펼쳐진 북위 62도34분의 도시가 4월에 이렇게 뜨겁다니, 이해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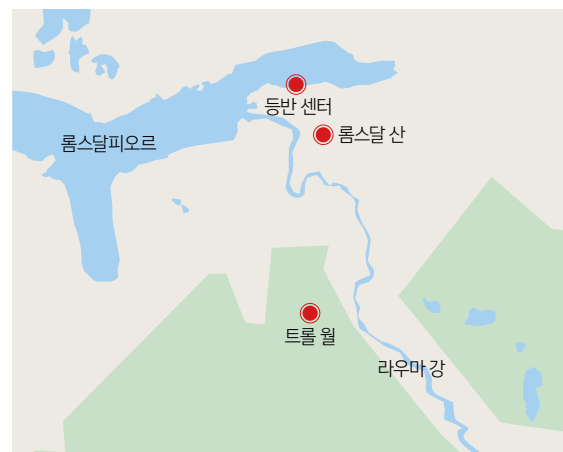
등반 센터에서 '모든 것은 자기 책임'이라고 적힌 서약서에 서명하고, 하네스(안전 끈)와 헬멧을 챙겨 출발지로 이동했다. 다행히 트롤 월은 아니었다. 롬스달 산의 서쪽 절벽에는 초보자용, 숙련자용 등 2개 루트가 마련돼 있었다. 출발지 아래에서 장비를 착용하고 안전사항과 이동방법을 배운 후 가이드를 따라 등반을 시작했다.

흰 눈 쌓인 봉우리가 펼쳐진 온달스네스 등반센터 인근 선창에서 10대들이 다이빙을 하고 있다.





1 롬스달 산의 가파른 암벽에 매달려 바라보는 주변 풍경이 아름답다. 2 등반 가이드가 피오르가 펼쳐지는 풍경을 배경으로 멋진 포즈를 취했다. 3 절벽에 걸린 쇠줄을 붙잡고 오르는 참가자들



200m 수직 암벽을 기어오른다

시작 지점의 해발 고도는 100m. 처음부터 가파른 암벽이다. 절벽에는 카라비너(로프 고정 고리)를 거는 튼튼한 쇠줄이 달려 있고, 잡을 곳과 디딜 곳도 있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하다. 지레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다. 자신감이 없으면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일단 등반을 시작하면 중간에는 그만둘 수 없기 때문이다.

10분 정도 올랐을까. 벼랑에 가로로 설치한 나무 발판을 지나면서 돌아보자 주변 풍경이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초록빛 숲과 호를 그리며 흐르는 라우마(Rauma) 강, 흰 눈 덮인 봉우리들이 시야를 가득 채운다.

조금 더 오르자 처음의 팽팽했던 긴장감과 두려움은 어느덧 사라졌다. 벼랑에 걸터앉아 물로 목을 축이는 여유도 생겼다. 물론 일행 중에는 풍경을 감상할 겨를도 없이 시선을 암벽에 고정해 채 힘이 잔뜩 들어간 손으로 바위를 잡고, 다리를 부들거리며 오르는 사람도 있었다.

손과 발을 천천히 차례대로 움직여 조금씩 벼랑을 오르다 내려다보니 바닥이 까마득하다. 어떻게 올라왔나 싶다. 쇠줄에 카라비너 3개를 단단히 고정해 채 벼랑 끝에 서서 아슬아슬한 포즈를 취하며 기념사진도 찍었다.

출발 2시간 만에 등반은 끝났다. 해발 300m가 넘는 곳까지 200m 이상의 수직 암벽을 올랐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야말로 인생 최고의 짜릿한 경험이었다. 목적지에 닿은 일행의 얼굴에는 만족감과 안도감이 한가득했다.

하지만 하산길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능선을 따라 1시간 30분 정도를 내려가는데 암벽등반으로 기력을 소진한 탓인지, 다리가 자꾸만 후들거렸다. ❶





여행정보

항공편
평소 인천에서 노르웨이 오슬로를 잇는 직항편은 없다. 핀란드 헬싱키나 터키 이스탄불, 러시아 모스크바를 거쳐야 한다. 올여름에는 대한항공 직항 전세기가 6월 14일부터 8월 9일까지 인천~오슬로 구간을 9회 왕복 운항한다. 인천에서 오전 11시 30분 출발해 오슬로에 당일 오후 3시 10분 도착하고, 복항편은 금요일 밤 9시 10분 출발해 다음 날 오후 2시 5분 돌아온다. 운항 시간은 갈 때 10시간 40분, 올 때 9시간 55분이다. 오슬로~베르겐 구간은 비행기나 열차로 이동한다. 항공편은 50분, 기차는 7시간 가까이 걸린다.

날씨, 여행 복장, 시차
여행에 가장 좋은 시기는 5~8월이다. 이때 평균기온은 최저 10도, 최고 20도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할 수 있고, 지역마다 날씨가 달라 긴 옷과 외투를 준비하도록 한다. 비도 잦기 때문에 우산이나 방수 기능이 있는 옷을 챙긴다. 시간은 7시간 느다.

전압
전압은 220V로 한국에서 사용하던 전기제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환율, 물가, 봉사료
화폐단위는 크로네(NOK). 1크로네는 약 136원이다. 여행 중 확인한 생활물가는 생수 500㎖ 한 병이 편의점에서 31크로네(4천200원), 슈퍼마켓에서 23크로네(3천100원)이며, 330㎖ 생맥주(한자비어) 한 잔은 89크로네(1만2천원)다. 맥도널드 빅맥 세트는 119크로네(1만6천원)다. 일반식당에서는 한 끼에 3만원 정도를 예상해야 한다. 호텔, 음식점 등에서 봉사료는 없다.



음식
연어, 고등어, 청어, 대구, 킹크랩, 민물 가재, 홍합, 새우 등 해산물을 이용한 요리가 많다. 찐 감자와 신선한 채소가 곁들여진다. 미트볼(완자)도 흔하다. 전체적으로 음식이 매우 짜다. 주문할 때 소금을 적게 넣어달라고 요청한다. 감자를 주원료로 만든 증류주인 아쿠아비트(Aquavit)가 유명한데 소주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맛이 난다. 아쿠아비트는 '생명의 물'이란 뜻이다.

베르겐 카드
베르겐과 인근을 잇는 버스와 기차, 플뢰엔 산 케이블카, 박물관과 미술관, 아쿠아리움, 과학센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식당, 주차, 베르겐 공항고속버스는 할인된다. 24시간 쓸 수 있는 카드의 가격은 성인 280크로네(3만8천원), 학생 및 어르신 224크로네(3만원), 3~15세 100크로네(1만3천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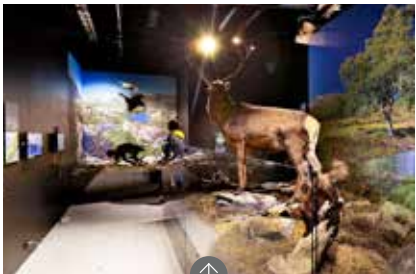
기타 명소



가울라르프엘레 관광도로
노르웨이에는 아름다운 자연을 관통하는 관광도로 18개가 있다. 그중 10개가 피오르 지대에 위치한다. 발레스트란에서 로옌으로 이동할 때 총 길이 130km의 가울라르프엘레(Gaularfjellet) 관광도로를 지난다. 이곳에서는 빙하수가 흐르는 강과 계곡, 야성적인 폭포, 주변 풍경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호수 등 피오르의 다채로운 면모를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지그재그로 수차례 꺾이는 오르막 도로 끝에 있는 전망대에서는 눈 덮인 산과 지나온 도로 등이 발아래 펼쳐진다. 고개를 넘어 빙하수가 흐르는 계곡을 따라가다 보면 리크홀레(Likhole) 폭포도 만난다. 폭포 위로 설치된 다리와 거대한 물줄기가 이룬 풍경이 장관이다.



베르겐 매직 아이스바
온통 얼음으로 치장된 공간에서 얼음 잔에 담긴 음료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베르겐, 오슬로, 트롬쇠에 있다. 방한용 판초와 장갑을 착용하고 아이스바에 입장하면 갖가지 빛깔의 LED 조명을 받은 얼음 조각을 볼 수 있다. 뭉크의 '절규'를 비롯한 유명 명화와 음악가 그리그 등 다양한 조각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항구를 가운데 두고 브뤼겐 맞은편에 있다. www.magicice.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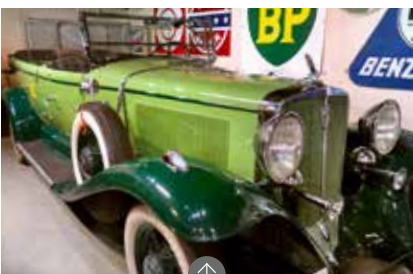
세계유산 방문자센터

노르웨이 피오르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기념해 2002년 예이랑에르에 들어섰다. 건물은 피오르를 향하는 화살 모양이다. 노르웨이의 자연풍광 속을 여행하는 콘셉트로 꾸며졌다. 빙하와 강이 독특한 피오르를 형성한 방법과 피오르의 동식물에 대해 배울 수 있다. www.fjordsenter.com



사이다 하우스

사과, 딸기를 원료로 만든 사이다와 주스, 최고 도수 22도의 과일 와인을 생산하는 발레스트란의 농장이다. 각기 다른 도수의 맛좋은 사이다 5종을 맛보고, 사이다와 브랜드의 전통 제조법을 엿볼 수 있다. 농장주가 만든 건강 요리도 즐길 수 있다. 발레스트란 항구에서 남쪽으로 도보 10분 거리에 있다. www.ciderhuset.no



클래식카 박물관

예이랑에르 유니온호텔 소유주가 수집한 클래식카 10여대가 호텔 내 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1920~1930년대 예이랑에르에서 실제 운행하던 우아한 외관의 차들이다. 캐딜락(1919), 허드슨(1922), 스튜드베이커(1925), 뷰익(1927) 등과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 자동차를 빌려 짧은 여행도 할 수 있다.



유용한 웹사이트
발레스트란 고속단정 관광(www.balestrandadventure.no), 바이킹 체험마을(www.vikingvalley.no), 온달스네스 암벽등반(tindesenteret.no), 노르웨이투어(www.norwaytours.no, 교통편, 여행상품, 체험 관광 이용 시)